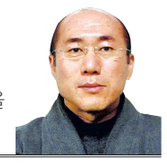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⑲ 나눔[布施]이란? : 안도현의 '연탄 한 장'



▶한줄 요약
시인은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온몸으로 보여 주는 연탄을 바라보면서 삶을 더 깊이 있게 음미하도록 이끈다.

연탄 한 장의 나눔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군대 시절의 일이다. 상병을 달고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 후 가게 될 첫 휴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선임병에게 잘못 맞는 바람에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다.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이 모습을 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를 생각하니,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휴가를 나갈 수 없었다. 그때 한 동기가 취사장에서 달걀 하나를 얻어 와 눈 주위를 문질러 보라고 주는 것이었다. 무슨 효과가 있겠냐 싶었지만, 속는 셈 치고 탄약고 보초를 설 때마다 살살 문질러 보았다. 한 이틀쯤 지나고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멍 자국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달걀을 깨 보니, 검푸른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이 물건이 내 아픈 상처를 모두 받아 냈다는 것을.

그 당시 김형곤이라는 개그맨이 유행시킨 재미난 유머가 있었다. 한 젊은 청년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3년 동안 산속에서 도를 닦았다고 한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한 소식도 듣지 못한 청년은 하산해 집에 가는 기차를 타게 된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과자나 음료수, 맥주 등을 파는 이의 말을 듣고 그 해답을 찾는다. 바로 이 소리다.

"삶은 달걀요!"

삶은 달걀 파는 소리를 듣고 삶이란 달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군대 시절 이 물건이 눈 주위의 멍을 삼킨 것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뜻이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달걀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이었다. 마치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下化衆生]' 보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수업 시간에 가끔 들려주곤 한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을 읽으면서 문득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달걀과 연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둘이 닮았기 때문이다. 연탄 역시 자신을 불태워 얼어붙은 방구석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 지금은 도시가스가 널리 보급돼 쉽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연탄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였다. 그래서 겨울철 창고에 높이 쌓인 연탄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거꾸로 몇 장 남아 있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이 앞서곤 했다.

어디 그뿐이던가. 다 타고 남은 연탄재는 빙판길에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 돼 주었다. 시인의 지적처럼 자신을 산산이 으깨어 다른 이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그야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존재였다. 안도현 시인은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연탄 한 장'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안도현은 198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84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기도 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시인은 중학교 국어 교사로 활동했으나 전교조 정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 갔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너에게 묻는다', '연어', '스며드는 것' 등이 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영향력도 큰 편이다. 소월시문학상과 백석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연탄 한 장'은 1994년 출간한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에 실린 작품이다. 출판사에 의하면 '일상의 평이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평범하지 않은 성찰'에 이르게 하는 시집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연탄 한 장'을 통해서도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다. 과연 연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구에게 /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 연탄차가 부릉부릉 /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

다른 이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연탄
온몸 불태우면서도 아상 내지 않아
무주상보시 실천하는 보살의 모습

네 /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 생각하면 / 삶이란 /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 보살의 보시바라밀

이 시를 읽으면서 '설중송탄(雪中送炭)'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땔감을 보내 준다는 뜻이다. 중국 송나라 때 혹한 속에서 고생하는 친구를 위해 숯을 보내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이야기다. 춥고 힘들 때 벗이 보내 준 땔감 하나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한없는 감사함이 느껴지는 이유다. 예전에 연탄이 떨어지면 옆집에서 한 장씩 빌리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 돌려주지 못해도 얼른 갚으라고 채근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연탄이 많이 사용됐다. 한마디로 연탄은 나눔과 온정의 상징이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 어떤 수행보다 나눔을 중요하게 여긴다. 대표적 수행 체계인 육바라밀(六波羅蜜)에서도 보시바라밀이 가장 먼저 나온다. 육바라밀은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가리킨다. 바라밀이란 본래 범어인 '파라미타(paramita)'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여기에는 완성과 도피안(到彼岸)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피안에 이르는 것이 곧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맥락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마디로 보시를 비롯한 여섯 가지 실천을 통해 수행을 완성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차안(此岸)에서 행복이 가득한 파라다이스 피안(彼岸)에 이른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시는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올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시에는 내가 가진 재물을 함께 나누는 재시(財施)와 아는 것을 베푸는 법시(法施),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 주는 무외시(無畏施)가 있다. 특히 무외시는 돈과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찡그린 얼굴과 퉁명스러운 말투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다. 이것도 일종의 악업(惡業)을 짓는 행위다. 하지만 미소 띤 표정 하나만으로 우리는 선업(善業)을 짓고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필자가 수업이나 법회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다.

"오늘도 마음엔 평화, 입가엔 미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바라밀, 즉 수행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평소 나눔을 실천할 때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보시가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간혹 이런 실수를 한다. "나는 얼마를 보시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해?"라고 말이다. 고마움이 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면 나눔이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만다. 그래서 보시를 실천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가 몰라줬을 때 이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가 알아주면 고맙지만, 몰라주면 나도 모르게 서운함을 느낀다. 불교에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시했다는 상(相)을 내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웬만큼 수행이 깊지 않으면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공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상대가 모른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무주상보시를 잘 실천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서운함은 날려 버리고 정말로 수행을 잘한 자신을 칭찬하고 토닥거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연탄 역시 다른 이를 위해 온몸을 불태우면서도 결코 아상(我相)을 내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을 뜨겁게 태울 뿐이다. 사람들은 연탄 덕에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 물건은 서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마치 보시바라밀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고 온몸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시인은 이런 연탄을 보면서 스스로 고백한다.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했다고 말이다. 그리고 삶이란 연탄처럼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이라는 성찰을 하게 된다. 시인의 눈에 비친 연탄은 자신을 모두 태우고도 다른 이들이 혹여 미끄러질까 봐 남은 재마저 산산이 부수어 길을 내고 있었다. 전형적인 보살의 모습이다. 다만 이를 모르는 중생들이 연탄재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뿐이다. 시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 너는 /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보시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게 해 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살이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